

251

40



佛法研究會

創刊號

目次

會說

反求諸已外反求于人……全飲光

法說

入禪斗効力……徐大用

感想

京城支部基地紹介記……李完喆

三

完全並接本以……宋奉燠

三

衛生以要法……曹頌廣

各地會合

公益及團金收入狀況

人事動靜

會說

反求諸己와 反求乎人

(一)

武士가 활을 잘 쏘기로 하면 화살을 쏘와 화력을 맛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反省하여 自己의 技術이 能熟치 못함을 알아야
 할 것이요 이 잘 못 쏘는 것을 考準하여 잘 쏘는 方式을 究見하여
 따라서 不屈의 誠으로 많이 쏘와야 할 것이다 이와 反面에 활을 쏘와
 맛치지 못할 때에 自己技術이 不足함을 反省치 못하고 弓矢를
 惡望한다거나 또는 自暴自棄하여 쏘기를 中止한다면 활의 成
 功을 하지 못할 것은 勿論이요 그 一個嘲笑의 的이 되고 말 것이다

(二)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일을 進行하다가 失敗되는 일이 있을 때에 自

已를反省하여事實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前鑑삼아
가지고 다시는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로盟誓하며蘇、奮發할
것이요 실사나는一毫도 잘못함이 없고 오직他人의過失로因하여
그일이失敗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바의過失
을생각하여 잘못을他人에게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事實은
過失을他人에게 돌린다고 하더라도別實効가 없나 까닭이다
그리고 더욱이 이와反面에自己의게잇는過失을他人에게 돌리거나
한번 지은過失을 더물하여中途而廢止하면自暴自棄의行動을
말아야 할 것이다

(三)

이에吾人は 그結果를檢討하여보자過失을自身에求하는者의結果
는어찌되며過失을他人에게求하는者의結果는어찌되는가? 그
것은長慨한煩說을할必要가없이우에말한所는武士와같다

하살이 懺革을 맛치지 못할 때 自己技術의 不足함을反省하여 奮
發精進하난 者는 大成을 하고 弓矢를 惡望하여 他物의 求
하는 者는 成功치 못하난 것과 같이 모든 일의 失敗를 當할 때 恒常
失을 自身에 求하여 不屈精進하난 者는 처음 보기에 過失이 있
난 것 같으며 拙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그 價値가 甚히 低下되는 것 같
이 만 光陰이 흘러고 歲月이 바뀔 일사록 그 前途에는 過失이 次々
어지며 그 價値와 名譽는 漸々 騰貴하여 갈 것이요 恒常 過失을 他人
의 求하고 또는 自暴自棄를 잘하는 者는 처음에는 아소 淸淨한 듯
하여 잘나고 평소하고 價値와 名譽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이와 友
比例로 지낼수록 아소 拙하고 卑劣하고 賤한 地位에 墮落되고 마니 이
것은 自萬古以後 人類階級의 昇降은 左右하난 鐵則으로 歷史가 記
明하는 바라 위 敢히 否認하리

聖賢君子는 누가 되었으며 凡夫小人은 누가 되었느냐? 聖賢도人
生이요 凡夫도人生이니 다 先天의 稟賦에 조그만 差를 잇고 宿習
의 慣習에 若干 差異가 잇다 하드레도 現實에 잇어선 君子 小人之
莫大한 層下가 區別되는 것은 勿以上에 말한 그 것이라 할 수 잇도다
過失을 恒常 自身에 求하는 者外 過失이 잇다 하드레도 百折不屈의
精進하난 者는 結局 聖賢 君子의 地位에 올을 것이요 過失을 恒常
他人의 求하거나 過失을 求할지라도 中途而廢止하는 者는 凡夫小人
의 地位에 處할지라

以上

吾人은 此를 證據하여 恒常 反求 諸己의 精神을 놓지 않기로 하난
同時에 反求 吾人의 行動을 말기로 하자

法說

筆受人

徐大用

入禪의 効力

한때에 宗師로 여러 禪徒의게 일터가라사대 우리가 入禪을 많
이 하고 보면 그 前에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習慣이 變更되나니 오날은
우리가 功夫를 하면 事實의 前에 묻으는 것이 많아지고 習慣이
變更되는 案例를 들어 말하리라 하사코 이어 말씀하사대 우리
가 다 보고 들었사다는 바와 같이 朝鮮 사람의 익쿠고야는 바와 日本
사람의 익쿠고야는 바가 각기 判異하지 않이 한가 하나 그러나 朝鮮
사람이 萬一 日本 사람의 아는 바를 알고 日本 사람의 익훈바를 익후
기로 알^전대 問題는 特히 그에 잇을 뿐이오 男女를 勿論하고 양 理致
는 萬無할 것이다 왜그러나 하면 어떨 한 일 勿論하고 내가 비록 많
이 양해보고서 두른 일이라 도 내가 그 일을 間斷함이 오레 하고 보면

其終에는自然그일이익숙해지고習慣이든은가다라이다그럼으로
누구를勿論하고日本을전니가서日本사람과오래만相從해살고보
면自然日本사람의習慣이들고日本사람의아는바를아는것은숙
일수있는사실이다그러나이와反面에내가비록前에말이해보고
익숙한일이라도오래／＼않하고보면不知中에그일이서투러지고
前習慣이빠지는것이니朝鮮사람이美一日本을전니가서朝鮮
사람과는조금도相從이없이日本사람과만오래相從해살고보면朝鮮
사람의習慣이不知中에빠질것은亦是事實이않인가? 그러
면朝鮮사람이朝鮮外韓의習慣은없어지고日本사람의習慣
이들었으니이것은習慣이變更된것이요 또는日本사람의아는바를
알았으니이것은前에보르는것을알지않했는가! 우리의入社도
이와같하야우리집에서날마다가르치고배우고主張하는바는四恩
四要와三綱領八條目과率性要論과戒文等이니우리도거複雜한塵

世를여이교이러한淸淨法界에와서以上의본은法을오늘도배우고來日도
배우며今年에도와후고來年에도와후고하야永遠이놓지만않이하교
여러해만지내모보면自然이法에習慣이들것은事實이되이와反面
에저世上五慾의習慣은不知問에떠러질것이다그러면저世上五慾의
前習慣은없어지고四息四要와三綱領八條目과率性要論과戒文等
의종은法으로새習慣이들것이니이것은우리가入禪을한結果習慣
이變更된것이오또는會話講法을한다法說을듣는다經傳을讀習
한다함에따라前에보르든것을많이알았으니이것은亦是우리가
入禪을한結果가많은가何如問 무엇이나오래해서알되는法은
도모지않는것이니諸君은늘어서工夫못한다는말도말고男世老少가다같
못한다는말도말고無識해서못한다는말도말고男世老少가다같
이一年에몇달式이라도間斷없이禪工夫만하고보면날을期約하고
成功할것이다그러나入禪할階梯가못되는사람이이말을들으면

或落心을 하기가 쉽다 그러나 在家 하면 事도 能히 工夫 할 수 있는
在家 應用 注意 法과 工夫人이 敎務部에 在하면 責任上 條外 每
月 三例 會 보는 法이 잇으니 이 법가지 法만 가지고도 決斷이 有
만 하고 보면 成功 勿할 理致가 없나니라 하시더라

一八、四、二。記

끝



京城支部新占基地紹介記
李完喆

觀乎高大駱山이며? 大京城의 東部를 鎮壓하고 聳天의 雄姿를 날아내고 萬丈風生을 빚어나서 四十萬長安을 儼然히 守持하고 있다! 頂上으로 屹 들어 있는 雄偉한 城郭은 數百年 以來 鮮의 首都인 偉蹟을 歷然히 保存하고 있다! 背後 東北으로 噴吐하는 支脈幹線은 垂楊千萬絲가 꺼꾸러져서 千谷의 參差交錯하게 도벌여 있다 地域全幅이 蔚密하게 도벌여 있어 松林은 萬頃風濤를 이루고 있어 대貌然한 這圃에는 俗客으로 차려 볼 수 없는 別有天地인 우리 支部新占地가 天慳地秘하였다 繁華喧鬧한 紫陌紅塵을 다 헛치고 東小門 밖에서 서서 한 거름을 돌이게 된다! 東便으로 城郭을 끼고 松林속으로 차차 들어 查蒼한 果樹林속에 하나씩 들식 散在하여

보이는人家를指占하면서 歩二步로 옮겨가면 所從來를 알기어
려운一曲溪流를 만나게 된다 이瀟灑한 물소리를 맛추어 거름
々々上進하면 蔚密한 果樹를 담복실丑閑寂한 地帶에 遽然한
武陵洞天이 展開되었도다 周圍를 휘돌아싸고잇는 百尺長松
은 百年風霜에 늘근 姿態를 날아내며 바람을 따라自然의 風流
를 알외이고 前面에 瀟灑清雅하게 도를너가는 溪水는 迂回屈
曲한 岩石의 구비를 취시 한 뜻결도 남김없이 색시취간다 !
여기저기 노여잇는 盤石은 遊戲客의 寶坐로 占之하엿고 左右로
接해잇는 峰巒은 蘇暢客의 望遠台가 適當도다 西天을 저를
듯이 피고잇는 三角山은 무슨 保護를 줄듯이 멀어바라보고잇다
壯絶奇絶한 個中에는 萬丈紅塵의 大市街를咫尺에 등지고 複雜
한 世上消息을 손으로 사라진듯하다 ! 或은 넘어나 寂寞함을
깨트리주기為함인지 間々히 昌信洞 꼭대기로 바람을 따라 넘어

오년電車소리며 앞으로城北洞街路를通行하는自動車소리는
市街消息을실낙과같이傳해준다 이년真正한修道地이며古詩
에일은바除是人間別有天이라하겠도다大都市街附近으로附는
언기어려운땅이다 이년天賦之土로佛法研究會를크박
기다리고잇는것이얼마나고마웁고하겠다 그러나사람의見地
와趣味는千般萬樣으로많은것이다物外眞趣를發見치못하
고時俗에流轉되는見地로볼때는現今發展時代의相反되는
缺點이잇다할것이다

(一) 電燈이缺는것

(二) 交通이不便한것이다

그러나이도脫塵避俗의一大好料라하노라

以上

感想

第二十七号

六

始創拾八年閏五月十八日

第十七回 普通團長

提出人 宋奉燮

中央研究部

貴中

◎ 完全한接木이 됩시다

今年春期에 鎮安滿德山洪谷山田에다가 女子人材 養成團經
營으로 피옴나무 七百餘株를 接木한 일이 있었음니다. 그런데
五月二十日 頃에 苗木田에가고 成不成을 調査해 본즉 어떤 木은 接
木이 잘되나 什감나무(柿木)가 變조를이 몰다오는 것도 있고 栗木
피옴나무가 그대로 變조를 몰다오는 것도 있고 栗木은 본즉 偶然이 接

木이 잘되야 노니 한 갑나무가 올라오는 것은 반가우며 사랑스런 마음
이 섞이는 면에 퍼옴나무가 그대로 파랑게 올라오는 것은 미운 마음
이나며 사랑스럽지도 않하엿읍니다. 그러저 그緣由를探究해 보아
本來緣由의 퍼옴나무로만 들기 爲하여 金錢과 人巧를
加하여 掩木을 부친지라 바라는바 갑나무가 생할 때에는 반가우며
다름 없고 사랑스러우며 퍼옴나무가 그대로 생할 때에는 미움고
싫고 하며 虛妄하엿읍니다. 萬事가 다 바라는바에 符合하엿
爽快하고 반가우며 違反하고 矛盾되면 싫고 貴치 않을 것
은 定理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工夫하는 吾等 同志 覺醒해 生覺
해 본즉 宗師님께 읊시는 여러 弟子들이 깨달았노라 할 때로
늘 본은 不我를 버리고 正我를 掩부치시며 惡心 惡行을 버치
시고 善心 善行으로 掩부치시며 煩惱 苦痛을 버치시고 安心 安
定으로 掩부치시와 我의 善과 惡의 善과 樂의 善이 樂이 되

를 기다리고 개심할 때에 괴음나무가 갑자기 무로 변하여 더
뽕 같아 무악이 나오듯이 見性道人在繼續하다 나오면 그 나무
나뭇가지가 사라스러우시게 되니 또 自身心上에는 열
마나한 慶喜가 나타날 것임이 다 하겠음이다
그러나 前記 괴음나무는 接木이 되지 않으니 한 다 할지라도 過
한 損失은 없는 것이니 잘못 되었으면 翌年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今世 道德工夫라 하는 것은 失敗하면 一生의
空過로 宗師主의 弘恩을 나무가 背恩함이 될지니 이는 接木의
본은 信仰과 본은 希望과 본은 樂을 오르지 이에 從하여 盟誓하고
大道人이 되기로는 小의 自由와 大의 智見을 다 拋棄
하고 오직 한 無情之物이 되어 接木치시는 칼과 잡매는 繩帶를 잘
받아 完人으로 한 良心이 아름다운 것이니 遺芳百歲하여 名傳
千秋하여야 自己의 希望과 宗師主의 聖德을 값음기 될까 하나

이다

右勘定等級

佛法研究會

宗法院

끝

甲

衛

生

의

要

法

曹 頌 廣

(가) 어린 兒 孩 길 으 는 法

一. 등 은 다 습 게 해 줄 것

二. 배 는 다 습 게 해 줄 것

三、발은 다 굽게 해 줄 것

四、머리는 시원하게 해 줄 것

五、가슴은 시원하게 해 줄 것

六、조금식 / 자조목욕을 식혀 줄 것

七、피상한 물건을 보여 주지 말 것

八、비위는 항상 더웁게 해 줄 것

九、우름 갖치기 전 때 젖을 먹이지 말 것

十、생것이나 차고 단 것 먹이지 말 것

十一、옷은 되도록 가벼웁게 해 입힐 것

十二、바람 없이는 날에는 자조태양을 보아 줄 것

十三、아해를 난 후로 반련이지낸 뒤에 미음을 먹일 것

十四、아해를 난 후로 백일이 된 뒤에 마음대로 보듬어 업혀 줄 것

十五、이불은 너무 두터웁게 해주지 말 것